

광주 중앙·중외·일곡 등 5개 공원 최고 35층 아파트 92동 들어선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분양가 평당 1900만원
건설사 수백억~1100억 수익

중앙·중외·일곡공원 등 광주를 대표하는 5개 공원에 오는 2023년 말까지 최고높이 35층의 아파트 92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가도 평당 1900만원에 이르러 이들 공원 개발로 건설업체들은 수백억원에서 1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을 벌이게 될 건설업체와의 향후 협상에서 공원과 어울리는 아파트 디자인·경관 형성,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 아파트 분양가 및 수익 적절성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가장 면적이 넓은 중앙공원 1지구(241만2688㎡)의 아파트 개발 면적은 18만9361㎡(개발 비율 7.85%)로, 최고 높이 25층의 13개동과 26개동으로 구성된 2개 단지가 공원 인근 아파트단지에 인접해 들어선다. 우선협상대상업체인 (주)한양은 평당 분양가를 1893만원(임대 1350만원)으로 책정, 이에 따른 총분양수입은 1조647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파트단지 조성 9652억원, 조경·휴양·편의·교양·도로 및 광장 등 공원 시설 설치 1300억원, 공공기여(광주형 중앙공원 청년 운영공모) 250억원 등 모두 1조5287억원을 지출해

1183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 (주)한양의 계획이다.

1550억원에 이르는 공원 시설, 공공기여 등의 지출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공원 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디자인 및 경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공원 1지구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인 중외공원(208만2873㎡)의 경우 14만5572㎡(6.99%)에 최고 높이 29층의 28개동으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은 9679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분양으로 1조180억원을 벌어들여 501억원의 수익을 쟁길 예정이다. 450억원에 이르는 도로 및 광장·조경·휴양·유치·교양시설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 및 제3구역 경계부에 일부 저축되는데다 호남고속도로 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피해, 경관 저해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적 59만3332㎡의 중앙공원 2지구 아파트 개발 면적은 18만9361㎡(7.85%)로, (주)호반건설은 '최소 개발 원칙'을 세워 면적에 비해 적은 최고 높이 28층의 6개동만 신축할 방침이다. 공원시설 사업비로 100억원을 책정했다. 시는 6일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5개 공원 6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4월까지 사업자와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자 모집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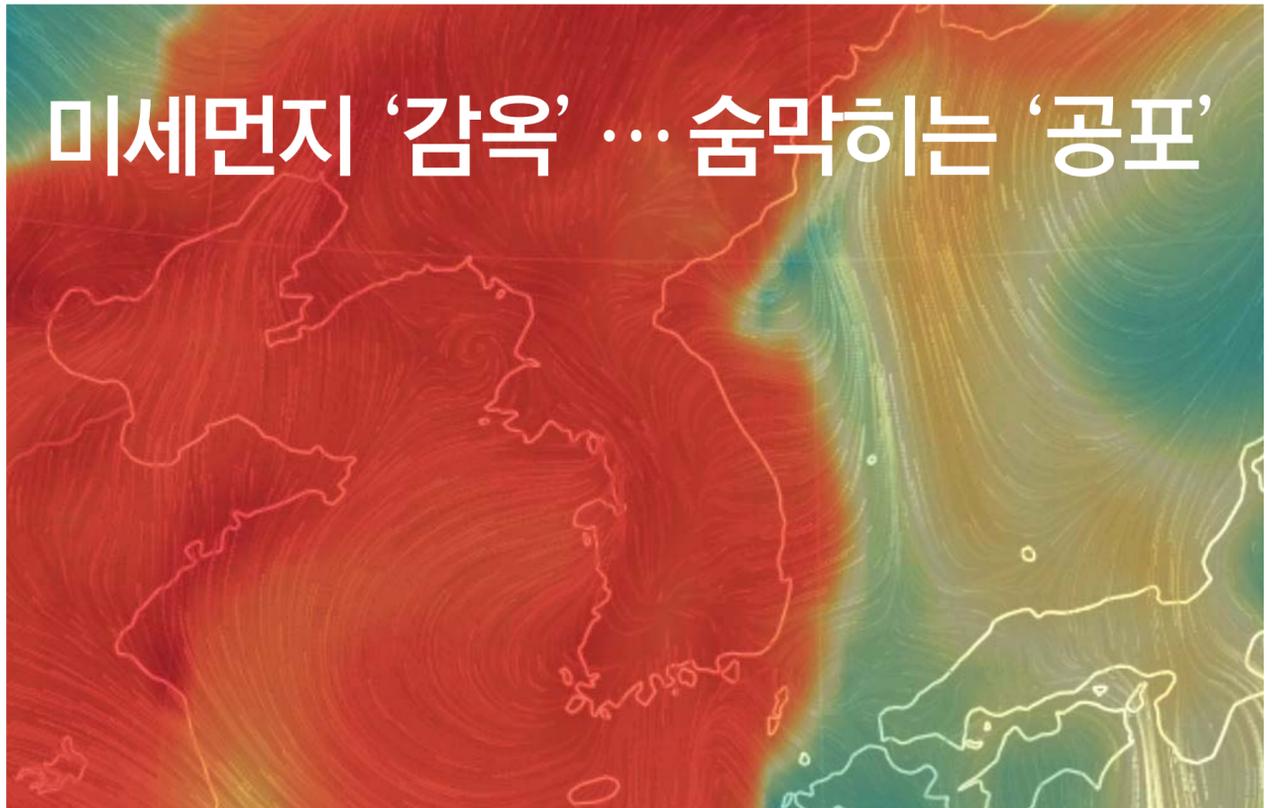
주간사 삼일회계법인 선정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유치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4일부터 투자자 모집에 돌입했다. 시, 현대자동차, 삼일회계법인은 합작법인이 '시민이 키우고 지키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시민주 공모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다.

구체화하고, 잠재적 투자 기업 및 재무적 투자자(FI)에 대한 본격적인 개별 접촉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현대차,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에 투자유치사무실을 개소하고, 자기자본금 2800억원 가운데 광주시(590억원)와 현대차(530억원)의 투자금액 1120억원을 제외한 1680억원의 유체에 착수했다. 투자유치 대상은 지역 상공인 및 업체, 현대차 관련 기업,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이다. 합작법인 및 공장 설립, 운영자금 등으로 쓰일 전체 사업비는 7000억원으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소 증감될 가능성도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미세먼지 '감옥' ... 숨막히는 '공포'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시행된 5일 세계 기상 정보를 시각화해 나타내는 비주얼 맵인 에스널스콜로 확인한 오전 9시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 상황. 중국과 한반도 부분은 초미세먼지로 붉게 표시됐지만 동해와 일본 쪽 대기는 깨끗하게 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비상저감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시행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역대 최악 피해 ... 항공기·여객기 결항·지연 속출

학교 야외수업 금지 '비상'

광주·전남에서 최악의 대기질이 이어지면서 항공기가 결항하고, 실외 수업이 중단되는 등 일상생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단속에 나서는 등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 6면>

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역에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부터 현재까지 역대 최장기간 미세먼지 특보(PM 2.5 150 μg/m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효 중이다. 이에 따라 5일 오전 8시30분 기준 목표항을 기점으로 하는 26개 항로 47척의 여객선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안개에 미세먼지가 겹쳐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탓에 여객선의 발길이 묶였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에서는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잇따랐다. 광주공항에서는

제주행 1편이 결항했으며, 다른 제주행 3편은 이륙이 지연됐다. 무안공항에서는 제주행 국내선 2편, 국제선 2편(오사카·다낭)의 출발이 지연됐다. 필리핀 세부에서 무안공항으로 향한 항공기 1편은 저시정 영향으로 착륙 지연되면서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검토하기도 했다.

학교 현장도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새학기를 맞은 학교는 반별로 전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생 등 민감군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리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한다고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하고 있다. 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휴업·수업시간 단축을 자체 판단해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교육청은 또 미세먼지 예보 및 농도에 따라 고농도 예보·고농도 발생·주의보·경

보 등 4단계 대응요령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익일 예보가 '나쁨' 이상이면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점검을 하고, 고농도 발생 시 실외수업을 자제한다. 주의보 발생 시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한다. 경보 발생 시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조치와 함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날 오후 복구에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점검했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되면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폐회식 주제 빛의 분수·아름다운 순환 ▶5면

'발등의 불' KIA, 1201명 연습경기 투수 7명 올려 마운드 점검 ▶20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잘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노동청은 이날부터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를 본격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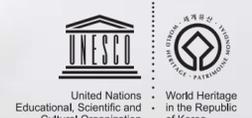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었다. 노 실장은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의 유입, 최근 대기 정체 현상 등이 큰 요인을 차지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해남**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대행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해남군